

헤비메탈 전설 '메탈리카' 한국 투어

3년 6개월만 내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

미국의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가 3년 6개월 만에 내한공연한다. 공연주최사 AEG 라이브와 액세스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메탈리카는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난다.

지난 9월 메탈리카 월드투어 스텝진은 고척스카이돔을 사전 답사 최종 대관을 결정했다. 한류그룹 '엑소' 등이 공연한 고척스카이돔은 2만명 수용이 가능한 장소다. 메탈리카는 이 곳에서 공연하는 첫번째 해외 뮤지션이 된다.

무대 중앙에 가로 28m, 세로 9m의 5단 LED가 들어서 웅장함을 더한다. 딜레이 스피커를 설치해 라이브 공연이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와 정점을 관객에게 선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100명의 스텝이 동행한다. 메탈리카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제임스 헛필드, 드럼에 리스 울리히, 베이스리스트 로버트 트루질로, 기타리스트 커크 헤미트로 구성됐다.

1981년 울리히와 헛필드를 주축으로 결성됐다. 1억10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 등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록 밴드로 통한다.

1983년 첫 앨범 킬 엠 올(Kill 'Em All)을 발매했다. 특히 1991년 발매된 5집 '메탈리카'는 미국에서만 1700만장을 판매했다. 당시 음반 판매량 집계 회사 사운드스캔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총 9차례 그래미 어워드와 2차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다수의 MTV 뮤직 어워드를 휩쓸었으며 2009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13년 12월에는 남극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메탈리카는 1년 이내에 7개 대륙에서 공연을 펼친 최초의 밴드



한국 팬들의 열정을 이끌어낸 메탈리카

드로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 이름을 올렸다. 내한 공연은 1998년 처음 성사됐다. 이후 2008년 단독 공연했으며 2013년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의 헤드라이너로 국

내 무대에 섰다 메탈과 록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메탈리카가 내한공연을 통해 끌어모은 누적 관객수는 총 10만명이다. 이번이 네 번째다. /뉴시스

제2회 은빛수필문학상에 '정장영 수필가' 선정

안골은빛수필문학회는 제2회 은빛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정장영(86세) 수필가를 선정했다.

수상작 '사랑방'은 지금은 사라진 시골 사랑방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한 수필이다.

안도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제목이 진부하지만 사랑방의 추억과 사랑방의 역할을 적절히 소화했다. 시골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환경에 따라 자취를 감춘 사랑방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대식 마을회관인 복지관이 사랑방 역할을 다해 주고 있다"고 평했다.

정장영 수필가는 수상소감을 통해 "배우는 처지 아니 되던 못 되던 삼(三)두의를 믿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 많이 쓰려고 했지만 갈수록 태산협곡이었다. 잘 해서라기보다 잘 해보려는 경고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빛수필문학상은 도서출판 Bok Manager 김서종 대표의 창작지원금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안골은빛복지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국악기와 피아노의 만남

한국전통문화전당 내일부터 두차례 공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비람의 의식-피아노와 국악이 되다를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7시 30분 전당 공연장 2층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이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사)타악연희원 아리가 공동 진행한다.

비람의 의식은 사람들의 비람이 성취될 열원하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내면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찾아 가는 여정을 담아내며, 피아노와 국악의 전통과 현대의 이색적인 무대 조합으로 구성했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한 흥성훈 마이스터가 손수 제작한 한국 최초의 투루에 오르겔(비람오르겔)이 전 통타악과 만나 어떤 소리를 구현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김동철 원장은 "이번 공연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며 유래된 전통 타악기와 서양 음악사 1000년 동안 약기의 제양으로 굴림 했던 피아노와 만나 동서양 약기의 이색적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보기 드문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문의는 281-1525(흥보마케팅팀, 공연장 상주단체 담당자)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장률 감독의 영화 '춘몽' 전주에 찾아오다

디지털독립영화관 상영작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비바)와 일상적이면서도 담담한 유머를 그린 장률 감독의 '춘몽'을 20일 상영한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비바'는 관공과 열정의 도시 쿠바의 아버지를 배경으로 한 청년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담은 음악영화이다. 영화는 감독 페디 브레스네치가 아버지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드래그 퀸 공연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제작됐다. 50~60년대를 풍미했던 소울 가득한 쿠바 디바들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주인공 헤수스의 모든 열정인 담긴 폭발적인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를 비롯해 선댄스영화제, 산티아고 라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장률감독의 10번째 장편영화 '춘몽'은 예사롭지 않은 세 남자 시장을 아슬렁거리며 농담 때떡거리 하는 한물간 건달 익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난 정범, 어리바리한 집주인 아들 종빈 그리고 이들이 모두 좋아하고 아끼는 그들의 여신 예리가 꿈꾸는 세상을 담아낸 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예리가 운영하는 '고향주막'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오아시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리의 고향주막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면서 이야



장률 감독의 10번째 장편영화 '춘몽'

기는 전개된다. 영화는 꿈과 현실의 모호함을 그리고 있으며 에로틱하면서도 때론 모자자간 같은 아슬아슬한 네 남자의 관계가 공금증을 유발한다.

한예리를 비롯해 작품에는 양아준, 박정범, 윤종빈 세 감독이 배우로 출연해 자신들의 전작인 <뽕파리>, <무산일기>, <용서 받지 못한 자>의 캐릭터를 연기한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jiff.or.kr> 문의는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아리랑 소리랑' 2016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장려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합창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운영하는 어린이합창단 '아리랑 소리랑'이 2016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의 제4회 전국아리랑경연대회에서 장려상(상금 30만원)을 수상했다.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은 2013년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시작된 대규모 복합문화 축제로 올해는 '춘몽! 아리랑'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

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풍류마스터 임동찬과 어린이 합창단 아리랑 소리랑(28명)이 무대에 출연해 전북지역의 특성을 담은 '은고을 아리랑'을 율동과 함께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유경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는 "매주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며 "아리랑이 아름답고 재미있는 곡이라는 걸 더 많은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밥 딜런, 음반 폭발적 인기... 노벨문학상 3일만에

3일 동안 국내 판매량 1000장 넘어

미국 포크 음악의 대부 밥 딜런의 음반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음반 유통사 소니뮤직에 따르면 딜런이 지난 14일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 3일 동안 그의 국내 음반 판매량은 1000장을 넘어섰다.

소니뮤직은 "이는 1년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로 현재도 추가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팝음반 차트에서는 밥 딜런의 베스트 앨범과 대표작들이 팝차트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가요가 포함된 전체 차트에서도 10위권(에스24 차트기준)으로 선전하고 있다. /뉴시스

소니뮤직 홍보팀의 변준수 씨는 "인기 앨범들은 현재 일시적으로 품절된 상태"라며 "현재 음반 제작사들은 연장근무를 하며 수요를 맞추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10대, 20대 음악팬과 다시 한번 밥 딜런의 음악을 듣고자 하는 중장년층이 주요 구매층"이라며 "연말연시의 선물로 앨범을 찾는 소비자들과 함께 기업차원의 구매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발매 예정인 음반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68년 딜런의 모든 라이브 실황을 담은 36 CD 박스셋 밥 딜런 : 더 1966 라이브 레코딩스 가 11월 발매된다. /뉴시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p>▷쥐띠 46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라.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예민해질 수 있다. 72년생: 인덕이 따르니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 84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p>	<p>▷소띠 49년생: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마음도 몸도 분주한 날이다. 61년생: 생각지도 않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이를 따르면 이익이 된다. 85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섭생을 주의하고 건강에 신경.</p>	<p>▷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주의하라. 62년생: 걸으려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르다. 74년생: 상대편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있다.</p>	<p>▷토끼띠 51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었으니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 63년생: 정신이 흠미하니 흑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p>
<p>▷용띠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베풀어라. 64년생: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니 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표현하라.</p>	<p>▷뱀띠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65년생: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여성을 대동하라. 77년생: 막힐이 있는 운이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p>	<p>▷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들어진다. 66년생: 좋은 일하고 뽐냈는지, 나사지 않는 것이 신척이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나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p>	<p>▷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무지 않은 운이니 세심한 일을 하기에 부적합.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약간의 구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리게 오해가 풀린다.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긴다.</p>
<p>▷원숭이띠 55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9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진진하라.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p>	<p>▷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인연이 생긴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러기때 유의해야 할 운.</p>	<p>▷개띠 48년생: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60년생: 완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2년생: 문서에 길운이 들었다.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 아주 좋은 날. 84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이 가서 들어질 수 있다.</p>	<p>▷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다. 59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된다. 문서에도 길성이 들었다. 71년생: 뜻밖의 기운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p>